

酪農家들의 답답한 心情을 통분하며

金 南 龍

酪農家뿐만 아니고 文化民族의 絶對食品인 牛乳를 먹는 牛乳愛用者는 勿論 原乳生産과 乳製品生産에 從事하고 있는 關係人士들은 7月20日 某日刊紙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다. 1面 특記事에 그 內容 또한 깜짝 놀랄 記事로 이 記事를 믿는 사람이라면 牛乳를 절대 마시지 않을 程度로 恠毒하고 歪曲된 기사였다. 數次 事實이 아닌 나쁜點을 강조하면서 新聞社에 研究 논문을 건너준 교수는 自己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박수를 쳤을 것이다.

희랍의 古代 神話에 나오는 장면이라고나 할가, 두 마귀가 농간을 부리고 그 농간에 걸려든 대중들이 고통스러워 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회열을 느끼는 그런 것에 비유나 할까, 무엇때문에 研究논문 그대로가 아니고 그 논문의 자료에다 최악의 상태로 과장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또 이 자료를 그대로 받아드려 기사화 하였는지 보통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酪農界는 태풍이 휩쓸고 간 들판과 같은 상태다. 酪農界의 심정은 답답하기만하다. 태풍과 같이 천재지변으로 돌릴수만은 없는 것이 아닌가, 全國의 2만6천 酪農家は 젖소의 52%에 유방염이 걸리게 하고 또 불결한 牛乳를 生産하는 理性과 良心이 없는 악덕인으로 하루아침에 낙인이 찍혔으니 이 심정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勿論 新聞가사대로 그런 牛乳를 生産하였다면 무슨 말이 있겠는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 취급을 여지없이 당하였으니 울분이 치솟아 오르는 것이다.

6백여만 牛乳愛用者도 牛乳를 마실때 전과

같이 기분 좋게 마실 수 있겠는가. 牛乳를 먹지 않으면 안되는 병약자가 牛乳를 음식으로 또는 食事로 여기고 먹을 수 있겠는가. 먹기 싫지만 먹지 않으면 영양공급이 안되어 할 수 없이 먹는 그런 기분이 아니겠는가.

酪農家와 消費者에게 끼친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勿論 乳業體와 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끼친 경제적, 정신적 손실도 막대한 것이다.

畜産業의 發展과 振興을 爲하여 獸醫學을 研究한다고 하고 또 후진을 가르치는 位置에 있는 教授의 말이고 보니 그것이 과장되고, 거짓이고, 악의찬 말이라하여도 듣는 이는 믿는 것이 상례이다. 教授의 말을 믿지 못하는 社會가 왜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번 이 結果는 教授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데서 온 것이고 보니 앞으로는 教授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 있겠는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은 社會의 큰 不幸을 낳는 것이 아니겠는가. 누어서 뺏은 침이 어디로 멀어지겠는가.

이 문제해결은 全國의 2만6천 酪農家들이 납득이 되는 線에서 해결이 되리라 기대를 하며 앞으로는 다시는 이번과 같은 자살행위적 행위는 없어야 하겠다. 또한 그것이 보장이 되어야 하겠다. 다시는 그 우물물을 먹지 않겠다고 우물에 침을 뱉지만 언젠가는 그 우물물을 다시 먹게 될 것이며 자기 생각에는 잘 한다고 강조, 강조하여 발표토록 유도하여 보도케 하였지만 그 결과는 국위손상이란 국민으로서 국가에 못할 짓을 하지 않았는가. (本會專務理事)